

보도자료

쇼피, '픽업 서비스' 신규 개편... 한국 셀러 물류비 부담 대폭 완화

- 타 택배 서비스 대비 평균 배송비 5 배 이상 절감
- 2.5~3 일 이상 소요되던 배송 기간도 하루 단축
- 해외 현지 고객 제품 평균 수령 기간 1 일 이상 단축



[이미지] 쇼피 픽업 서비스 차량

2020 년 11 월 11 일 -

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(지사장 권윤아, [Shopee](https://www.shopee.com))가 '쇼피 픽업 서비스'를 새롭게 개편하며 국내 셀러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.

쇼피는 셀러가 주문된 상품을 경기도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보내기만 하면 해외 현지 배송을 모두 처리해주는 원스톱 물류 서비스인 SLS(Shopee Logistics Service)*를 운영하고 있다. 이번 서비스 개편에 따라 셀러가 물류센터로 상품을 보낼 때 발생하는 픽업 서비스 비용이 기존 대비 대폭 인하됐다.

평균 50 개의 제품을 담을 수 있는 P.P 박스* 하나 당 서울은 2,000 원, 인천과 경기 지역은 5,000 원이 부과된다. 지난 3 개월간 하루 평균 주문량이 65 건 이상인 셀러들에게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, 매일 오전 6 시까지 픽업을 신청하면 픽업 차량이 박스를 당일 수거한다.

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평균 배송비가 5 배 이상 절감되며, 2.5~3 일 이상 소요되던 배송 기간도 하루 단축된다. 해외 현지 고객이 최종적으로 제품을 수령하는 기간도 평균 1 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쇼피코리아 권윤아 지사장은 “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 중 주문 수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일별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쇼피가 유일하다”라며, “국내 브랜드와 셀러들이 본 서비스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 쇼피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* **SLS(Shopee Logistics Service)**: 셀러가 김포/동탄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주문된 상품을 발송하면 쇼피가 동남아 6 개국 및 대만 현지의 물류센터 및 최종 고객까지 모든 배송 과정을 전담한다. 주문 수량만 발송하면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 용이하다.

***P.P 박스**: 가로 50cm x 세로 70cm x 높이 55cm 의 폴리프로필렌 박스. 평균 크기의 포장 박스 50 여 개가 수납된다.

###

쇼피(Shopee) 개요

2015 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쇼피는 총 6 억 인구를 보유한 동남아시아와 대만의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이다. 지역별 사용자 특성에 최적화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통해 단기간에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. 현재 싱가포르, 대만, 베트남, 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7 개국에서 쉽고, 안전하고, 즐거운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. 쇼피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, 이커머스,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인터넷 기업 시 그룹(Sea Group)의 자회사이다. 시 그룹은 2009 년 창립 이래 급속 성장해 2017 년 뉴욕증권거래소(NYSE)에 상장되었다.

쇼피코리아는 한국의 판매자들이 동남아 및 대만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켓 오픈, 판매자 교육, 담당 매니저 배정, 통합 물류 서비스, 현지 마케팅 및 번역/CS 등 전반적인 수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shopee.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문의

쇼피코리아 박소연 PR 담당

| soyeon.park@shopee.com

| Shopee.kr / [Blog](#)